

### 국제항공운송 총회, 2002년 서울서 개최

민간항공업계 최대행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가 오는 2002년 6월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피에르 J 제니어 IATA사무총장은 2일 2002년 IATA총회의 서울유치를 한국측에 정식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올해 중 협회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니어총장은 "아시아 항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이 지역 항공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에 총회유치를 공식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ATA총회는 1백40여개국 2백40개 항공사에서 6백여명의 항공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국제회의로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ATA총회가 극동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2년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의 마케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과 공동개최키로한 월드컵대회와 같은 해에 대규모 행사가 열려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 미FAA, 인터넷 통해 항공안전 정보공개

미연방항공국(FAA)은 새로 개설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항공사의 안전도를 소비자들이 판단할수 있도록 각종 사건·사고 자료를 제공하고 2월 1일부터 5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안전사고들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FAA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1백10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뱀류젯 항공사의 안전기록을 FAA가 사고 이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이어 나온것으로 린다 대슬러 FAA 국장서리는 '공중 뿐만 아니라 공항, 정비, 법적 측면에서 각 항공사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론 와이든 연방상원 의원(민주)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과거에는 항공기의 비상착륙, 엔진작동 중단, 조종실내의 화재 등에 관해 당국에서만 알고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일반인들이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이 과거 FAA에 공개하던 안전상의 문제들을 앞으

로는 오히려 감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일반 대중이 FAA의 자료를 근거로 각 항공사의 안전을 판단할만한 시간여유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FAA는 3천명의 안전조사관과 1만7천명의 항공관제사들을 통해 연간 수백만건의 항공운항 보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중 어떤 종류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중이고 대략 항공사고 및 사건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FAA의 인터넷 URL은 <http://www.faa.gov>이다.

### 대구 오사키등 한일 6개노선 확정

한국과 일본은 대구, 광주, 청주와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를 각각 연결하는 6개 항공노선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월 28일부터 동경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의 한일노선으로 현행 서울, 부산, 제주 외에 대구, 광주, 청주를 추가하기로 했다.

### 루프트한자-봄바르디어 사업용 제트 전세기 합작 준비

독일의 루프트한자사의 관리위

원회는 루프트한자 시티라인사와 캐나다의 항공기 제작사인 봄바르디어사와의 합작사업으로 구성될 새로운 사업용 제트 전세기 회사를 승인했다.

이 합작 회사는 올해 2사분기부터 독일의 베를린 부근 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시티라인사에 따르면 동 회사는 20대에 달하는 LearJet, Challenger 비즈니스 제트기와 2-3대의 터보프롭기를 가지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운항 빈도가 적은 목적지로의 전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항공기에 대한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5-20석의 탑승인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시티라인은 밝혔다.

이 새로운 회사는 현 항공기 운전자들과의 협정을 통해 자사의 항공기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봄바르디어사는 항공기 공동관리에 대한 기술적 책임을 맡게되고, 시티라인사는 마케팅과 서비스 기준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시티라인사는 '93년에 생긴 독일 국내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사의 자회사로 100인승 이하의 항공기로 독일 국내와 유럽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 아시아, 항공화물 급성장세

화물의 항공운송 수요가 향후 20년간 여객수송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내에서는 현재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보잉사는 항공화물에 대한 시장전망보고서를 통해 화물의 항공수송수요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6.6%씩 증가함으로써 여객수송 신장 전망치 5.1%를 크게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기간동안 노후 수송기의 대체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화물기가 '95년말 1,119대에서 2015년까지는 2,261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5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대형화물기가 전보다 6백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항공화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은 여객운송부문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으로 항공화물운송 수입은 '95년 전체 국제항공수입의 16%로 나타났다.

## AMR, 지역형 제트기 선정에 부심

AMR Eagle사에 대해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사와 브라질의 엠브레어사가 50인승 지역형 제트

기 판매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번 경쟁은 지역 제트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 확실한 Canadair Regional Jet와 EMB-145 사이의 싸움에 또하나의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어떠한 지역 항공기의 구매도 AMR Eagle사가 2000년까지 67대, 2009년까지 218대의 지역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을 허가하는 아메리칸항공의 조종사 조합의 가계약 협정에 대한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 협정은 아메리칸사가 항공기 수를 늘리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630대의 보잉기를 구매하기로한 거래는 지역 항공기 구매의 길을 터 주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의 운송업체인 ACA(Atlantic Coast Airlines)사도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항공의 조종사들이 동사의 지역 협력업체들이 제트기를 운항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협정에 동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엠브레어사는 미국과 유럽의 12개 항공사들과 300여대에 달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고시 가격이 약 2천만 달러인 Canadair Regional Jet가 1천4백50만 달러의 EMB-145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제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